

장애인 보호사업장 급여 '10만~150만원' 천차만별

광주·전남 보호사업장 47개 운영 업장마다 급여 지급액 차이 커 단순 생산직 형태도 변화 필요 노동청 "노동 정당한 댓가 지급"

중증장애인에게 안전한 일터·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해 경제적 독립의 길을 만들어주는 '보호작업장'의 운영방식이 천차만별이라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장마다 급여 지급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형태도 단순 생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당초 목적인 장애인의 사회화·자립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차이 큰 '기막힌 임금'

"일을 해도 생활이 안돼요. 사고 싶은 걸 구매한다는 건 당연히 꿈도 못꾸죠. 이 월급으로 어떻게 한 달을 버티나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광모(27)씨는 지난해 광주 동구 A보호사업장에서 CCTV·에어컨 필터 조립작업을 했다. 광씨가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무해 받은 월급은 약 20만원 정도. 사회를 나가기 위해 보호사업장을 찾았던 광씨는 '고노동저임금'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그만뒀다.

광씨는 "광주고용복지센터를 통해 A작업장을 소개받았다. 처음에는 일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뻐했다"면서 "그런데 첫 달 월급으로 17만원이



최근 광주 동구 한 카페형 근로사업장에서 한 장애인이 직업 교육 훈련·근로를 하고 있다.

짜졌다. 교통비·식대만으로도 이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1년간 일했는데 오히려 적자만 심해졌다"고 말했다.

광씨는 해당 시설을 나온 뒤 최저지급을 맞춰 주는 카페형 보호사업장에 취직했다. 그는 이곳에서 와서야 '보호사업장 구조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보호사업장에서 일하는 상당수 장애인들은 최저임금 7조(정신장애·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다고 평가된 사람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에 따라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 탓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임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업주가 임의로 지급해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어지는 일도 대부분 단순 기술을 요하는 것들이어서 사회로 진출하기 어렵다.

광씨는 "임금 문제도 크지만, 힘들게 일을 배우도 보호사업장 업무가 대부분 단순 반복 작업이라 실제 일반 직장에서 쓰이기 힘들다"면서 "컴퓨터·온라인 등 시대에 맞는 직업 교육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직업교육 다양화 필요

보호사업장은 직업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중증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 광주 25개소·전남 22개소 등 총 4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들은 이곳에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복지사 지도 하에 임가공품·자재생산 등의 일을 하며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는다.

익명을 요청한 보호사업장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사업장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안 지키

고 있는 게 태반"이라며 "복지사들 역시 임금·확실화된 교육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앞으로 행정·제도적으로 이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들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호사업장도 할말은 있다.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할 만큼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병렬 직업재활센터협회장은 "보호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고용 장려금 등을 통해 겨우 작업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장애인들이 만든 물품을 팔아 번 돈으로는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한다. 장애인에게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150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유수일 상생작업장 대표는 "작업장 자체에서 능동적으로 장애인 인력을 양성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면서 "행정당국에서 장애인 직업 교육의 다양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고용복지센터 관계자 역시 "보호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도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본부로서는 수정 사항을 전달할 것"이라며 "근로 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이 작업장에서 숙달된 업무 능력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룩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 등 직업교육의 다각화 등에서도 관계 기관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정성현 기자**

“양금덕 할머니, 함께 싸우겠습니다”

광주·전남 등 전국서 1인 시위

정부가 추진 중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제3차배상안(병존적 채무인수안, 피고기업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해 원고인 피해자에 배상하는 방식)에 대해 국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16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 500여곳에서 정부의 배상안을 비판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시위 참가자들은 광주에서는 광주시청,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역, 금남로 5·18민주광장, 화정역 사거리 등 시민들 왕래가 많은 주요 거점 지역 곳곳에서 대국민 선전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피해자의 소리를 들어라' '강제연행 피해자한테 사죄 배상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전날 1인 시위의 시작을 알린 이지훈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사무국장은 이른 새벽시간인 오전 5시30분부터 서구 유덕교 사거리로 나왔다.

이 사무국장은 "이번 1인 시위의 첫 시작을 알리는 도화선 역할을 하고 싶었다"며 "우리가 양금덕이다"라는 마음으로 역사를 잊지 말고 양 할머니를 향한 지지를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부의 강제배상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공감과 지지를 보였다.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한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고, 운전자들도 창문을 열고 '힘내라'는 손인사와 응원을 보냈기도 했다.

한편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이날 약 100명의 시민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김혜인 기자**

고영구 광주지법원장 퇴임... “사법부 독립 완수”

최인규 광주고법 부장판사 명퇴

고영구(65·사법연수원 20기·사진) 제 42대 광주지법원장이 32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16일 퇴임했다.

고 법원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그간 법원은 사법 서비스가 지역에 골고루 미치지 못하도록 노력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됐다. 남은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켜온 사법부 독립을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고 법원장은 "송사 업무는 당사자에게 중요하다. 중요한 일들을 하고 보람을 느꼈다.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사건



핵심을 찾아내 정의를 찾아주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전했다. 제주 출신인 고 법원장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동부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광주가정법원장,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최인규(59·23기) 광주고법 부장판사도 29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하고 이날 명예 퇴직했다. **김혜인 기자**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돈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혀 문외한이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봄에 떠나는 그립은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